

#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2학기로 ... '9월 대란' 우려

## 시기는 가을·장소는 육지... 교통·숙박시설 태부족 합량미달 시설 이용 우려... 교육당국 대책 마련을

'세월호 침몰 참사'로 1학기 수학여행 등 교외활동이 전면 중단, 2학기로 연기되면서 '9월 체험활동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체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국의 초·중·고교가 육지로 풀리게 돼 교통·숙박시설 등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자칫 합량미달의 교통편과 숙박시설 이용으로 또 다른 사고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일선 학교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학교장들은 "한 학년이 단체로 가는 관광여행식 수학여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을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답답해했다. 학교장들은 "학부모들과는 달리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상당수 학교들은 단체 관광형 수학여행이 아닌 진로와 연계한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광주 A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진로 등을 연계해 주제가 있는 탐구여행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태스크포팀을 구성해 소규모 테마형 탐구활동의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장과 수학여행 개선방안을 논의해 소규모 테마형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문제는 올해 2학기다.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수학여행을 2학기로 연기하면서 9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그 이후엔 추위로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는 총 1129개교(광주 303, 전남 826)다. 이 중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곳은 광

주 30여곳, 전남 50여곳 뿐이다. 나머지 1000여 곳은 올해 수학여행을 포기하거나, 2학기때 가야 한다.

이 같은 사정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와 여행업계는 '9월 수학여행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봄·가을로 분산됐던 수학여행이 가을로 집중될 경우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자칫 합량미달의 숙박시설과 낙후된 버스가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수학여행이 9월로 몰릴 경우 교통편이 크게 부족해 '5년 이내'로 정해진 지침이 무시되고 노후차량이 배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학생·시민들 '노란리본' 확산

## "기다릴게, 제발 돌아와"



네티즌 SNS 동창

후원 모금 활동도

광주지역 학생들 사이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 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상무고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사들은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희망과 연대의 노란리본 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노란리본은 전남 일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제작해 달기 시작했으며, 이날 전교생으로 확산됐다.

2학년 이수현 양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노란리본 달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노란리본 달기는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리본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려졌으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란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네티즌들은 이 그림을 리트윗(RT)하거나 페이스북·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란리본 확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촛불기도회도 열린다.

광주시의회 정회국 의원은 광주 시민과 종교계 등에 22일부터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광주시청 앞 야외광장에서 '꼭 돌아와! 광주시민 촛불 기도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광주YMCA도 23일 오전 11시 동구 금남로에서 '세월호 실종자 생환 기원과 유가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 및 희망 리본 달기' 집회를 연다. 또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후원 모금활동도 벌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신처리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 빈소까지 차렸는데 내아들 아니라니

구조는 차치하더라도 학생 시신이 바뀌거나 시신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유족에게 시신 인계 절차를 간소화해 '조건부 인도'를 하기로 했으나, 절차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22일 새벽 목포 가톨릭병원으로 옮겨진 시신을 놓고 유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와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이 시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에서 떼어 오느냐"며 항의했고, 일부는 "병원 엘리베이터에 시신을 놓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며 "옛날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 또 시신을 잃어버릴 뻔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충분한 일부 유족과 수사당국 관계자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희생 학생으로 판단돼 빈소까지 차려진 A군의 시신은 22일 오전 DNA검사 결과 유족과 불일치 판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시신은 현재 신원미상으로 분류, 당국이 유족을 다시 찾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박모양으로 알려진 시신이 이모양인 것으로 확인돼, 목포에서 안산으로 옮겨진 시신이 다시 목포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승선원 명부의 정확성 문제, 차량탐색 미신고자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선 인원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1분 해질 19시 11분 달돋이 01시 43분 달짐 12시 53분

**진도해상 '맑음'**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10/26°C
목포	맑음	8/22°C
여수	맑음	13/22°C
나주	맑음	6/27°C
완도	맑음	10/25°C
구례	맑음	7/27°C
강진	맑음	5/26°C
해남	맑음	5/26°C
장흥	맑음	5/26°C
순천	맑음	10/26°C
영광	맑음	7/25°C
진도	맑음	7/23°C
전주	맑음	8/25°C
군산	맑음	7/24°C
남원	맑음	7/25°C
홍산도	맑음	11/19°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김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동 0.5m 주의 높음 보통  
서해 북부 앞바다 북서~북동 0.5m 주의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0.5~1.0m 주의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김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동 0.5m 목포 08:27 00:49  
서해 북부 앞바다 북서~북동 0.5m 목포 20:50 14:0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0.5m 여수 03:28 10:00  
남해 북부 앞바다 북서~북동 0.5~1.0m 여수 16:03 22:01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7	12/16	13/23	14/18	14/19	9/23

# "급" 급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5평 → 3,000만원 (시세/감정가 4,500만원)
- 29평 → 5,000만원 (시세/감정가 6,500만원)
- 53평 → 1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2억)

문의. 010-3605-5000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1:1 개인지도
- ▶ 임장/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